

# ● 일본의 양계소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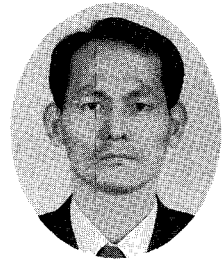


## 1. 도시별 2001년도 양계산물 소비 현황

일본 총무성이 지난달에 발표한 2001년도 양계산물의 가계소비 조사결과 도시별 구입량·지출금액에 의하면 닭고기의 세대별 구입수량이 많은 도시 순으로 열거하면 1위: 구마모또(熊本), 2위: 후쿠오카(福岡), 3위: 미야자키(宮崎), 4위: 오오이다(大分), 5위: 가고시마(鹿兒島), 6위: 오오즈(大津), 7위: 기따큐우슈(北九州), 8위: 와카야마(和歌山), 9위: 나가사키(長崎), 10위: 사가(佐賀)로 나타나 전년도(2000년)와 같이 규우슈지역이 상위를 독점하고 있다.

계란 구입량은, 1위: 돗토리(鳥取), 2위: 나라(奈良), 3위: 와카야마(和歌山), 4위: 마쓰야마(松山), 5위: 오오사카(大阪), 6위: 아오모리(青森), 7위: 마쓰에(松江), 8위: 쓰(津), 9위: 오오즈(大津), 10위: 도야마(富山)의 순으로 전년도에 이어 돗토리가 1위를 지키고 있다.

또한, 전세대의 구입량을 세대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해보면 1인당 구입량은 닭고기는 후쿠오카시(福岡市), 계란은 돗토리시(鳥取市), 마이요네즈·드레싱은 구마모또시(熊本市)로 나타났다.



윤 병 선  
한일사료(주) 기술연구소 부소장  
농학박사

## 2. 2000년도 계란과 닭고기 생산비용

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가 산란계 농가는 3 천수 이상, 브로일러는 년 간 3 만수 이상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조사·공포한 2000년도 농업통계에 의하면 산란농가 1 호당 평균소득은 672만 8,500엔(6,728만5,000원)으로 전년대비 11.7% 증가하였으며 가족노동 1 시간 당 양계소득은 1,285엔(12,850원)으로 전년과 비슷하였다.

산란계 농가의 양계부분만의 조수익은 3,619만8,700엔(36,198만7,000원)으로 전년 대비 2.3% 감소하였다. 여기에 경영비 합계는 3,068만800엔(30,680만8,000원)으로 3.0%로 감소하였고 차액을 제외한 양계소득은 551만 7,900엔(5,517만9,000원)으로 1.4% 증가하였다. 조수익에 대한 소득율은 15.2%이고 경영비 내역을 살펴보면 병아리 대금이 전체의 16.8% 사료비가 62.4%이며 이 두 가지의 비용이 전체의 79.2%를 차지하며 모두 전년보다는 감소하였다.

경영비를 사육수수료로 나눈 1 수당 경영비(생산비)는 2,333엔(23,330원)으로 전년대비 3.3% 인상되었으며, 정상란 생산량으로 나눈 계란 1 Kg 당 생산비는 144엔(1,440원)[사육수수 3 천수 이상 농가144엔(1,440원), 3 천~1 만수 이상 농가 151엔(1,510원), 1 만수 이상 농가 142엔(1,420원)]이었다.

브로일러 농가의 1 호당 평균소득은 678만800엔(6,780만8,000원)으로 전년대비 4.9% 증가하였다. 가족노동 1 시간 당 소득은 1,930엔(19,300원)으로 2.2% 감소하였다.

브로일러 부분의 조수익은 6,419만5,200엔(64,195만2,000원)으로 전년대비 2.1% 증가되었다. 여기에서 경영비 합계는 5,786만8,800엔(57,868만8,000원)으로 2.2% 인상되었다. 이를 제외한 생산비 내역은 병아리 대금이 전체의 17.3% 사료비가 66.1%를 차지하여 이 두 가지 비용이 전체의 83.4%를 차지하였고 전년보다 높았다. 통계에 의하면 2000년도 브로일러의 출하체중은 2.72Kg이며 생체 1 Kg당 생산비는 150엔(1,500원)이다. 규모별 1 Kg 당 생산비는 3 만수 이상이 15엔 인하된 150엔(1,500원), 3 만~10 만수가 5엔 인상된 156엔(1,560원), 10 만수 이상이 6엔 인상된 149엔(1,490원)이었다.

(이상의 자료는 모두 일본 계명신문에서 발췌)

※ 상세한 내용은 한일사료 기술연구소로 문의 바람 (031-280-4046)